

경의선 전철 문산역~임진강역 6km 28일 개통

송고시간 2020-03-18 11:21



우영식 기자

평일 왕복 4회·주말 왕복 8회 운행 예정



문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 전철화 사업구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역까지 다니던 경의선 전철이 오는 28일부터 6km 연장돼 임진강역까지 운행한다.

18일 경기 파주시와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경의선 전철 문산역~임진강역 6km 구간이 공사와 시설 점검을 마치고 28일 개통한다.

경의선 문산역~임진강역 구간은 단선으로 철도가 놓여 있으나 전력선이 설치되지 않아 하루 한 차례 평화열차(DMZ-train)만 운행했다.

이에 388억원을 들여 전력선을 설치, 전철 구간을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 구간은 단선으로 전철이 연결돼 평일에는 하루 왕복 4회, 주말에는 관광객 등을 고려해 왕복 8회 운행한다.

경의선 전철은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3.7km 추가 연장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에 사업비 178억원이 반영됐다.

경의선 철도는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문산~판문~개성 간 27.3km가 단선으로 복원됐으며, 문산역까지는 복선전철로 연결돼 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8 11:2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